



국토교통부

보도참고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배포 일시

2022. 9. 29.(목)

담당 부서

감사관실

책임자

과 장 이재평 (044-201-3110)

담당자

사무관 노치욱 (044-201-3104)

담당자

사무관 박형렬 (044-201-3106)

보도일시

2022년 9월 30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30.(금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업무상 배임 혐의 HUG 간부 형사고발 예정

- 특정업체 봐주기로 13.2억원 보증료 손실 발생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9월 30일(금)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주어 13.2억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.

* 조합주택시공보증 4.9억원, 주택분양보증 3.6억원, 하도급대금지급보증 3.8억원 등

-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* BB+에서 A+로 상향된 사실을 확인하였다.

* 대규모 자본증자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등급조정 신청이 가능하나, 모기업의 지원가능성 및 향후 경영성과 전망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았고, 아파트 할인분양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손실에서 제외

- 이러한 등급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 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,

-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해당 영업지사에서도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,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.

- 이외에도,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 과정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,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,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공사의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,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.

-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전횡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,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,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.



□ 임대보증금보증제도 운영 부적정

-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보증료 미 가입 대상임에도 임차인에게 사전 설명 없이 보증료를 납부 받음
- HUG가 출자한 기금을 부채에 포함하여 보증료를 과다하게 징수

□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 운영 부적정

- 특별할인을 기준*을 임의로 운영하여 보증료를 과다하게 징수

* 법인자산, 자본금, 매출액, 보험가입실적 등에 따라 6개 등급(50%~10%)의 할인을 적용

□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

- 서류보완 등의 사유로 전세보증금 반환기한(1개월)을 초과하여 반환

□ 여비제도 운영 부적정

- 팀장급(4급)도 특실 열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비규정이 과도하게 규정, 지급방식도 실제 이용여부 확인 없이 정액 지급

※ 권익위('14년) 및 기재부('15년)에서 출장여비를 공무원 수준(2급 이상 특실이용)으로 집행하도록 지침을 시달, 이에 따르면 HUG는 임원 이상만 특실 이용 가능

□ 출장여비 수령 부적정

- 실제 저가항공을 이용하고도, KTX 특실을 이용한 것처럼 정산*하여 출장비를 과다하게 수령('21년~)

* 서울 → 부산 KTX 특급 정산시 83,000원, 저가항공 이용시 18,000원~75,000원